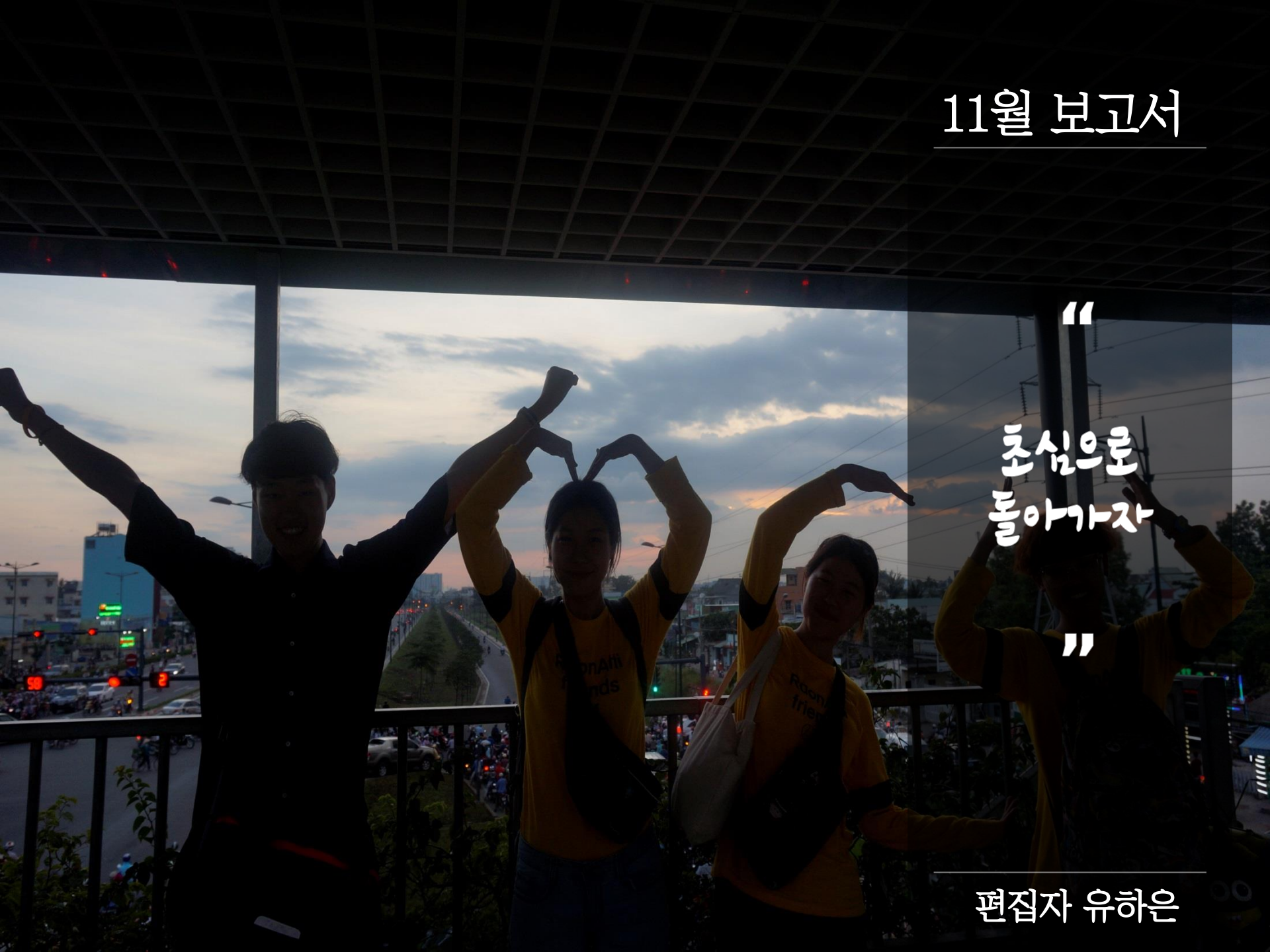


# 11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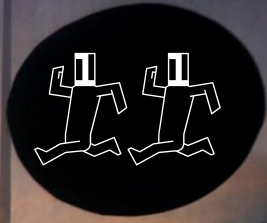


“

초심으로  
돌아가자

”

편집자 유하은



		1 4군 😊	2 홍안유치원 👤	3 🌐 오전-베트남어 오후-언어교환	4 레딘친초등학교 🏫	5 하은아빠생신 🎂
6 아픔의 마니또	7 10군 😊	8 📍 한국어센터 인간사님의 초대	9 홍안유치원 👤	10 🌐 언어교환 아픔의 관찰일지	11	12
13	14 📍 한국어센터	15 😊 1군 바비큐파티 초대	16 홍안유치원 👤	17 ✈️ 🌤️ 강호간사님 오신 날 🎉	18	19 준호&근우 면담 👤 홍안유치원 🎈 스승의 날 기념행사
20 준호&바다&하은 아픈 날 🏠	21 바다&하은 면담 아파서 Day off 🤒	22 📍 한국어센터 강호간사님 가신 날	23 ✈️	24 🌐 언어교환 베짱이팀나눔1	25	26 베짱이팀나눔2
27	28 동네분들과 파티	29 😊 1군	30 홍안유치원 👤			

살 날보다 산 날이 많아진 11월

11.01 - 11.30

# # 11월 1일

08:45	4군 스마일 레스토랑 출발
10:00	근우: 밥 채우기
~	바다: 설거지
13:00	준호: 식판 옮기기
	하은: 밥 푸기
	* 점심은 배고플 때 스마일에서
14:00	YMCA 도착
14:00	~
16:00	망고 먹고 흥안 갈 준비 & 씬
16:00	흥안유치원으로 출발
17:30	흥안유치원 도착
17:00	~
23:00	흥안유치원에서 저녁식사 & 씬
23:00	씻고 꿈나라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4군 스마일 레스토랑으로 가서 활동을 했다. 4군 스마일 레스토랑은 우리가 도착할 시간이면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되어있어서 다른 스마일 레스토랑에 비해서 여유롭다.

봉사가 끝나고 나서는 Anh Phúc이 사준 바나나과자를 먹으며 봉사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 후엔 집에 돌아와서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산 과일인 망고를 먹고, 쉬다가 버스 타고 흥안유치원으로 갔다. 흥안유치원에 가서는 빈둥빈둥 놀다가, 강호간사님과 통화를 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저물어 갔다.

## # 각자의 하루




-스마일 레스토랑에서 만난, 내 품에 안겨준 아기  
“내게 두 팔을 뻗어주어서 고마워. 감동이야.”

-스마일 레스토랑에서 정전이 되었다가 형광등과 선풍기가 켜지니 사람들이 환호했다.  
“우리는 무언가 없어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다.”

-4군 스마일레스토랑에 다시 가게 되면 Anh Phúc과 Phở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다.

-흥안 가는 버스에서 눈이 마주친 꼬마 2명과 총싸움을 했는데, 그 모습을 아빠미소로 지켜 봐주신 승객들의 눈빛, 그 따뜻함, 그리고 순식간에 친해진 꼬마들

-근우오빠와 나와 한이 서로 문을 잠구는 장난을 쳤는데, 어느샌가 그 장난이 재미가 없어졌다.  
“장난은 1절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1절이 어디까지죠?”



처음으로 1군이 아닌 다른(4군) 스마일 레스토랑에 갔다. 10시 반쯤 도착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배식될 식판들이 대부분 완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할 거라고는 밥을 푸는 것, 손님들이 드시다 양이 부족하면 추가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 설거지 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냥저냥 끝내고 벽을 봤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명언이 걸려있었다.

“Not all of us can do great things. But we can do small things with great love.”  
그 이후로도 이따금씩 이 말이 떠오른다. 앞으로도 방향할 때 이 말을 되새겨야겠다.

# # 11월 2일

06:30	아이들의 목소리에 기상
06:30 ~ 07:30	빠르게 양치세수 후 등원하는 아이들 맞이하기
07:30 ~ 08:30	아이들 체조 및 아침식사 돕기
08:30 ~ 09:30	아침으로 Phở 후식으로 Trà sữa
09:30 ~ 12:00	오전 활동
12:00 ~ 14:00	점심식사 및 낮잠
14:00 ~ 16:00	오후 활동

16:00	Trà sữa를 사먹으며 집으로
17:30	YMCA 도착
17:30 ~ 19:00	저녁으로 Cô Hoa께서 해주신 무한 리필 Bánh xèo 먹기 후식으로 구아바와 망고 먹기 및 설거지
19:00 ~	각자의 시간



## # 우리의 하루

새벽 6시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서, 간단히 양치세수 후에 아이들을 맞으러 갔다. 7시 넘어서는 각자의 반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으로 자주 가는 쌀국수 집에 가서 쌀국수를 먹고 후식으로 밀크티를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오전활동을 시작했다. 하은이는 교실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근우, 바다, 준호는 식물을 가꾸는 일을 했다. 오전활동이 끝나면 점심식사 후 꿀 같은 낮잠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낮잠을 2시간 정도 자고 나서 4시까지 오후활동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호아이모가 해주신 반세오를 저녁으로 배불리 먹고 각자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 # 각자의 하루

- 흥안유치원 선생님께서 오늘 바지에 똥을 싼 아이의 머리를 세게 때리셨다. 그걸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다. 선생님이 나쁜 분 같지는 않은데, 왜 아이들을 때리게 된 걸까?
- 우리 반 애기 응우어엔이 뽀뽀해줬다. 아이구 심쿵,,, 그렇지만 입술에 뽀뽀하면 병원 같은 것을 옮길 수 있으니까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오스트리아 아저씨랑 베트남 언니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간 것 같다.
- 오늘 출석부를 받았는데 까먹고 안 가져왔다. 프린트물은 사진으로 찍어두는 습관!
-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릴 뻔 했다. 정신차리고 내 물건과 팀 물건 잘 챙기기!



# # 11월 3일

09:00 ~ 12:00	타오 선생님과 베트남어 수업
12:00 ~ 14:00	Y에서 점심식사 후 쉬
14:00 ~ 16:00	언어교환 *준호는 파트너가 없다.
16:00 ~ 18:00	각자의 시간
18:00 ~ 19:00	저녁으로 Cô Hoa께서 해주신 Mi xào & 후식 Sinh tố xoài
19:00 ~ 22:00	자유시간 • 바다&준호&하은 야시장 • *근우 면접도와주러

22:00 ~ 23:00	소진에 대한 나눔
23:00~	각자의 시간





# # 우리의 하루

오늘 오전에는 타오선생님의 베트남 수업이 있었다. 오늘은 쉴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점심을 먹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2시 언어교환시간에 준호를 제외하고 각자 파트너와 수업을 진행했다. 언어교환 후에는 쉬다가 6시에 저녁을 먹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잠깐 소진(걸스데이)에 대해 다같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 # 각자의 하루



- 요즘 베트남어가 재미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어 실력이 여기서 멈추는 것을 싫다. 단어를 외우자!
- 오늘은 언어교환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준비를 안 해간 탓인 것 같다. 미에게 가르쳐 줄 것과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겠다.
- 야시장에 처음 간 날.
- 안중과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호아이모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알아냈다. 아들 한 명과 딸 두 명 그리고 다정한 노안아저씨!
-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UTE친구 Huyen의 유학 면접을 도와 주었다. 내가 도와 준 부분, 가르쳐 준 부분은 거의 없었을 테지만 막힘 없이 얘기하는 걸 보니 선생님으로서 괜시레 뿌듯해졌다. 이곳에서의 인연이 한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내가 받은 수많은 도움들을 반대로 내가 한국에서 도와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다.

# # 11월 4일

08:30	레딘친초등학교로 출발
09:30 ~ 12:30	쟁아 사온 반미와 반피우 먹고 지난 시간에 그리던 벽화 그리기
12:30 ~ 14:00	Circle K에서 점심식사 및 쉬
14:00 ~ 17:00	벽화 그리기 및 정리
17:00 ~ 17:30	폭풍 사진 찍기
17:30	YMCA로 출발
18:30	동네에 도착
18:30 ~	저녁식사 및 각자의 시간 *근우&하은 Phở / 바다&준호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우리끼리 레딘친 초등학교에 갔다. 학교에 갔더니 쟁이 우리를 위해 반미와 반띠우를 사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을 아침으로 먹고 저번에 못다 그린 도서관 벽화를 계속해서 그리고 물감으로 칠했다. 점심은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아이들과 같이 쉬는 시간을 갖다가 2시부터 벽화 그리기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활동을 마치고 나서 사진을 다 같이 찍으려고 선생님께 부탁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화보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고구마에 치즈가루 묻힌 것을 사먹으며 집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시간을 가졌다.

## # 각자의 하루



- 쟁이 우리를 위해 아침을 사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 넘어갔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 표현하는 내가 되기를.
- 벽화를 칠하다가 준호가 실수로 나에게 물감을 쏟았다. 그 순간 옷에 물감이 다 묻어서 화가 났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미 그 일을 벌어진 것이고 화내도 바뀌는 것을 없었다.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며 웃어 넘겨보는 노력을 해보자 하하
- 오늘 저녁으로 쌀국수를 먹었는데 근우 오빠가 같이 가줘서 고마웠다.



봉사자 Trang 과의 시간은 항상 즐겁다. city투어 할 때 만나고 두 달간 못 만났었지만 계속 봐왔던 것 처럼 편하다. Trang 은 아침 안 먹었을까봐 반미를 사오기도 하고 베트남 길거리 음식에 관심이 있는 날 위해 이것 저것 소개해주기도 하는 배려가 많은 친구라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같이 하고 싶은 친구다.

# # 11월 5일



## # 우리의 하루

하은이와 바다는 저번에 룬과 함께 갔었던 위켄드 마켓에 가서 시간을 보냈고,  
근우는 YMCA봉사자 중 한 명인 도동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 # 각자의 하루



- 갑자기 베트남에서 청바지(심지어 일자 청바지)가 입고 싶어서 위켄드 마켓에서 청바지를 샀다. 스스로 좀 기특한 게 무엇인가를 살 때 맨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고 후회하거나, 늦게 사서 얼마 쓰지 못했는데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꽤 짧은 것 같다.
- 베트남에서 물건을 살 때 늘 흥정하느라 기분상하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 담요 살 때는 내가 깎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돈이 모자른 것을 아시고 주인아저씨께서 담요 값을 깎아주셨다. Xin cảm ơn !



그간 너무 지쳤었나 보다. 적응하느라 썼던 에너지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했던 노력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들 때문에 갑갑했다. 그래서인지 그러던 와중에 봉사자 도동탄이 같이 놀자는 제안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또 그런 내 상황을 잘 이해해준 팀원들과 Y의 배려 덕분에 갈 수 있었다. 동탄이 친구들과 동탄, 그리고 나. 처음 보는 나를 잘 대해준 친구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흠뻑 젖어 길거리에서 미친듯이 웃기도 하고, 처음보는 음식들도 먹어보고,,, 베트남식 ○○○, 한국식 ○○○ 이런저런 것들을 공유하며 정말 많이 웃고 또 배울 수 있었다.

# # 11월 6일



## # 우리의 하루

준호와 하은이는 아침에 교회에 가고 근우와 바다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다 같이 야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먹고, 한 달간 진행했던 마니또를 공개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근우가 바다에게 선물한 떡볶이를 야식으로 먹었다.

## # 각자의 하루



섬섬대잔치,,, 사실 어느정도 예상하기도 했어서 그런지 자기전 '마니또 못해줘서 미안해' 라는 사과에 다 녹았다.



- 항상 나와 교회에 함께 가주고, 또 교회 식구들과 잘 어울리는 준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 이영도 집사님께서 간식거리를 사주셨다.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준호가 마니또 선물을 준비 안 해왔다. 나는 준호의 태도에 화가 났다. 준호가 평소에 표현은 잘 안 해도 우리팀을 아끼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다 같이 하기로 한 마니또 선물을 준비해오지 않은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



UTE에서 만난 히엔 누나와 이 날 약속을 잡아 한국어를 가르쳐주었다. 역시나 한국에는 볼때마다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카페도 가고 빠네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히엔 누나가 석사과정을 한국에서 밟는다고 하였다. 3개의 학교를 봐두고 있따 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 하나가 우리 학교였다. 그 동안 공대생을 못봤는데 여기 있었구나... 암튼 다음엔 우리학교에서 봤으면 좋겠다!

# # 11월 7일

08:45	10군 스마일 레스토랑 출발
10:30 ~ 13:00	근우: 밥 푸기 바다: 서빙 준호: 서빙 하은: 반찬 담기
13:00 ~ 15:00	점심식사 대접받음
15:00	YMCA로 출발
17:00	YMCA에 도착
17:00 ~	각자의 시간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1시간30분~2시간에 걸쳐서 10군에 있는 스마일레스토랑에 갔다. 10군 스마일레스토랑의 특징은 Take out이 가능하다는 것, 중국인 손님이 많다는 것이다. 1군, 4군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10군 스마일 레스토랑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하고, 아저씨들의 제안으로 점심을 대접받게 되었다. 봉사를 하러 와서 점심을 대접받는 상황에 각자의 불편함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시간을 가졌다.

## # 각자의 하루

- 
- 10군 스마일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만 어울리지 못하고 덩그러니 놓여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갑자기 우리 네 명이 등장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니, 환영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짐 같은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내 걱정과는 달리 직원분들과 봉사자분들이 우리가 10군 스마일레스토랑에 찾아 온 것에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다. '그래, 나를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이라도 기분이 좋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지.'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관점을 바꿔보자.
  - 속상한 일에 대해 엄마, 아빠한테 징징거렸는데, 항상 지혜로운 엄마, 아빠와의 통화를 통해 내가 라온아띠가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관계'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가는 날이 장날. 몸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2시간을 환승에 환승을 거쳐 10군 스마일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그리고 힘든 정도도, 봉사시간도 역대급이었다. 빨리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우릴 너무나도 환영해주시는 분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간 고급 레스토랑까지,,, 왜 하필 몸이 안 좋을 때 이런 날이 생기는지.. 많이 먹고 싶었지만 몸 때문에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너무 컸다.

# # 11월 8일

12:00 ~ 12:30	홍안유치원 갈 짐 챙겨서 Y에서 점심식사
12:30	한국어 센터로 출발
13:00	한국어 센터에 도착
13:00 ~ 17:00	13:00~15:00 근우 수업 15:00~15:00 준호 수업 *하은&바다는 Hot&Cold 갔다가 씬
17:30	동나이로 출발
19:00 ~ 20:30	임 간사님께서 달팽이 맛집에 데려가 주셔서 잉&씬&한과 즐거운 저녁식사
20:30 ~ 21:00	한&씬과 택시 타고 홍안으로
21:00 ~	이웃집 미유네와 관계 맺기 및 각자의 시간





## # 우리의 하루

바로 흥안유치원으로 갈 짐을 챙겨서 호아 이모가 해주신 밥을 먹고, 늘 북적북적한 8번 버스를 타고 UTE로 갔다. 하은이와 바다는 수업이 없어서 HOT&COLD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근우와 준호의 수업이 끝난 후 한과 함께 동나이로 갔다.

특별히 오늘은 인간사님께서 달팽이 요리 맛집으로 우리를 초대해주셔서, 저녁으로 잉, 씬, 한과 함께 여러가지 달팽이 요리를 먹고 택시를 타고 묻고 또 물어서 흥안유치원에 도착했다. 흥안유치원에 도착해서는 옆집 사는 미유네 어머니가 과일을 대접에 주셔서 밖에 앉아서 과일을 먹고 또 미유 어머니 친구분이 사주신 피치, 레몬티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 # 각자의 하루

- 
- 근우 오빠가 수업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괜히 한 소리 했다. 미안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해주기. “지혜롭게 이기적이지”
  - 전 기수의 활동보고서를 읽다가 피드백이 우리 기수와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한 피드백을 활동지에 전달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UTE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해오가 12월1일에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다. 분명 축하 할 일인데, 나는 괜한 걱정부터 앞섰다.
  -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선불리 부정의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맛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달팽이 요리를 맛있게 먹으며 생각했다.
  - 우리를 좋아해주시고 항상 베풀어주시는 미유네 가족과 베트남 분들이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UTE에서 내 수업이 끝나고 다른 팀원들은 수업이 있어서 나만 학생들과 카페에 가서 놀았다. 베트남어를 썩 잘 하는 게 아니라서 대화에 끼는데 한계가 너무도 컸다.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근황 뿐만 아니라, 한국어 배우는 이유를 듣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수업에 대한 피드백들도 공유할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다.

# # 11월 9일

06:10	아이들의 목소리에 기상
06:10 ~ 07:30	빠르게 양치세수 후 등원하는 아이들 맞이하기
07:30 ~ 08:00	아이들 체조 및 아침식사 돕기
08:00 ~ 09:00	아침으로 Phở
09:00 ~ 12:00	오전 활동
12:00 ~ 14:00	점심식사 및 낮잠 *연유+바게트조합은 사랑이다.
14:00 ~ 16:00	오후 활동


16:30	Trà sữa를 사먹으며 집으로
18:00	YMCA 도착
18:00 ~	각자의 시간




## # 우리의 하루

아이들의 목소리에 하루를 시작해서, 간단하게 양치세수를 한 후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맞으러 갔다. 그리고는 각자의 반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으로 쌀국수를 먹고 오전활동으로 한,바다, 근우, 준호는 식물 가꾸는 일을 하고, 하은이는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활동으로 각자의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 # 각자의 하루

- 
- 아이들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다가도, 가끔은 참 차갑다. 가끔 나에게 안기던 아이들이 나를 모른 척 할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이들이 좋다.
  - 오늘 우리반 선생님께서 우리반 아이들의 발바닥을 한대씩 때렸다. 자신이 맞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아이들은 나에게로 와서 안겼다. 그렇지만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나에게도 그 상황이 무섭게 느껴졌는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다.
  - 모두 똑같이 사랑해주고 싶지만, 유난히 정이 가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다. 그렇지만 정이 안 가던 아이들조차도 자세히 보니 행동 하나하나 참 사랑스럽다.



축구화는 9월에 샀지만 이제서야 축구를 했다. 다짜고짜 찾아가서 서툰 베트남어로 껴달라고 했더니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셨다. 하지만 2달동안 운동을 하지 않은 내 몸 상태는 훨씬 심각했다. 넘어지고 구르고,,,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축구가 끝이 난 후 아저씨들과 함께 음료수도 먹고 얘기를 나누면서 재미있었다며 다음에도 꼭 오라며 시간표까지 주셨다.

# # 11월 10일

12:00 ~ 14:00	Y에서 점심식사 및 쉬
14:00 ~ 16:00	언어교환 *준호는 원래 파트너가 없고, 하은이는 파트너가 시험기간이라 못 왔다.
16:00~	각자의 시간



## # 우리의 하루

책을 선정한 후에 수업을 하기로 해서 오늘은 베트남어 수업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활동은 언어교환밖에 없었는데, 하은이의 짝꿍 미는 시험기간이라서 못 와서, 바다와 근우만 언어교환을 했다.

오늘은 마니또의 관찰일지를 제출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팀원 중 한 명이 관찰일지를 장난으로 썼고, 그 장난 아닌 장난으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실망을 했다.

## # 각자의 하루



- 오늘 언어교환시간에 짝꿍이 못 와서 그 시간에 '마스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이라는 영화를 봤다. 이 영화를 보고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협력했을 때 쓸모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 바다가 깜짝으로 짜스어를 사주었다. 내 룸메 김바다는 사랑입니다.

# # 11월 11일

08:30	레딘친초등학교로 출발
09:00	팀원 중 한 명이 없어서 YMCA로 다시 돌아옴
09:00 ~ 11:00	한 간사님께 상황보고 및 씬
11:00 ~ 12:00	우연히 만난 유이 그리고 한과 아점으로 분깃느영
12:00 ~ 16:00	각자의 시간
16:00 ~ 18:00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
18:00 ~	각자의 시간 *근우가 11월11일이라고 과자선물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레딩초등학교를 가는 날이었는데, 버스를 기다리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이탈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지만, 먼저 코디네이터인 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활동에 가지 않고 YMCA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한의 제안으로 일을 잘 해결해보고자 모든 팀원과 한이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말'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그리고 저녁에는 11월11일 빼빼로데이를 기념하여, 근우가 팀원들을 위해서 빼빼로를 선물해주었다.

## # 각자의 하루



오늘은 정말... (절레절레) 활동지로 이동하던 중 한 팀원이 갑자기 사라졌다. 크게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나는 너무 웃기고도 슬펐다.

# # 11월 12일



## # 우리의 하루

하은이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러 1군에 가고, 근우는 영화를 보러 갔다가 동탄이와 시간을 보내고, 바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준호는 뭐했지?

## # 각자의 하루



혼자 시내에 나갔다. 잘 되지 않는 영어지만 자막없이 영화를 보고 넘치게 감동받았다. 이후 동탄이 친구의 생일파티에 갔다. 9명이 있었는데 동탄이랑 친구 한 명 빼고는 처음봤다. 심지어 생일인 친구까지도,,, 하지만 편하게 대해주는 친구들 덕에 계속 같이 지냈던 친구처럼 너무 재미있게 놀았고 간만에 많이 웃을 수 있었다.

# # 11월 13일



## # 우리의 하루

하은이와 준호는 아침에 교회에 가고, 근우와 바다는 집에 있었다. 교회가 끝나고 준호는 교회에 남아서 피아노를 치고 하은이, 바다 그리고 15기 단원 동혁이는 Y근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근우는 한 간사님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근우는 돌아오는 길에 팀원들을 위해 맛있는 빵을 사왔다.

## # 각자의 하루



Hanh 간사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고 저녁으로 삼겹살을 함께 먹으며 얘기를 나누었다. 있었던 오해들도 풀었고 또 나를 이해해주어서 너무 고맙다. 밥을 먹고 오락실도 가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덕분에 또 웃을 수 있었다. 내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 # 11월 14일

12:00 ~ 13:00	Y에서 점심식사
13:00 ~ 17:00	각자의 시간
17:00	한국어 센터로 출발
17:30	한국어 센터에 도착
17:30 ~ 20:45	17:30~19:00 근우 수업 17:30~19:00 준호 수업 19:15~20:45 하은 수업 19:15~20:45 바다 수업 *저녁은 공강시간에 바다&하은 옥상 / 근우&준호 각자
21:00	귀여운 한국어 센터 선생님들께서 잡아주신 택시를 타고 집으로
21:30 ~	동네 도착 및 각자의 시간 *야식: Trà sữa 와 bắp xào



## # 우리의 하루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점심으로 호아이모가 해주신 껌뽕을 먹었다. 서로 풀리지 않은 마음에 식사시간에 정적이 흘렀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각자 시간을 보내다가, 5시쯤 UTE로 갔다. 근우와 준호가 먼저 수업이 있어서 하은이와 바다는 매점에서 고이꾸온과 쏘이를 사서 분위기 좋은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을 먹었다.

그 후 하은이와 바다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땀 선생님, 네 선생님, 안경 선생님, 물안경 선생님께서 잡아주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오는 길에 밀크티와 밥사오를 사서 들어와서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 # 각자의 하루



- 잉 간사님에게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이 괜히 걱정된다고 고민을 털어 놓았다. 잉 간사님과 이런 저런 대화를 주고 받으며 든 생각은 나도 베트남에 유학생으로 왔다면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인 것이다.
- 오늘 수업에 퀴즈를 맞추면 선물로 주려고 햄버거 젤리를 사갔다. 나도 기분이 좋고, 학생들도 기분이 좋았다. 작은 행동으로 큰 기쁨을!
- UTE한국어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 우리 택시 잡는 것을 다 같이 새로운 앱을 깔아가면서 까지 도와주었다. 더 친해지고 싶다.



오늘 level 2 반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오늘 들어간 반은 조용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다. 수업을 일찍 끝내고 학생들과 이야길 했는데 무척 즐거웠다. 나를 좋아해주는 ute학생들이 항상 고맙다.

# # 11월 15일

09:00	1군 스마일 레스토랑 출발
10:00	근우: 식판 부엌으로 옮기기
~	바다: 반찬 담기
13:00	준호: 설거지
	하은: 밥 채우기
	* 점심은 배고플 때 스마일에서
14:00	YMCA 도착
14:00	
~	각자의 시간
16:00	
16:00	홍안유치원으로 출발
18:00	홍안유치원 도착
	*이 날 탄 버스는 덜컹덜컹 이상했다.
18:00	
~	쉽 및 바비큐파티 준비
20:00	*근우가 Trà sữa를 베풀어줬다.
20:00	미유네, 미유네 부모님 친구들,
~	쭈삐 그리고 한과 함께
22:00	바비큐파티

22:00 ~	각자의 시간
---------	--------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1군에 있는 스마일 레스토랑에 갔다가 쉬다가 흥안유치원으로 향했다. 지난주에 미유네 가족이 우리를 바비큐파티에 초대해 주어서 우리도 라면과 김을 챙겨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다. 바비큐 파티에는 바비큐 뿐만 아니라 오리고기, 반미, 샐러드 등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다. 미유 어머니와 아버지, 미유 어머니네 친구 부부, 미유 아버지의 헬스친구들, 쭈삐, 한, 그리고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 # 각자의 하루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새삼 또 느꼈다. 나도 쭈야지. 조금씩, 천천히일지라도.



- 가볍게 không gặp lâu를 외쳐주며 우리가 없던 사이에도 꾸준히 1군을 지켜주신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눴다.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나는 1군 스마일 레스토랑이 좋다. 앞으로도 여기에 꼭 다니고 싶다! 혹시나 나중에 베트남에 오더라도 여기서 한번 다시 봉사해보고 싶다.
- 솔직히 베트남에 오고 처음으로 '마을' 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갑자기 슬퍼졌다.



흥안은 항상 푸근하다. 흥안은 정말 마을답다. 이웃들은 제집 드나들 듯 다른 집에 들어가고 파티가 있으면 초대해서 함께 즐긴다. 베트남에서의 우리의 첫 바비큐는 너무도 푸짐했고 정말 맛있었고 많은 것들을 처음 맛보았지만 최고였다. 무엇보다도 우릴 처음 보는 이웃분들도 환영해주는 그 자리는 잊지 못한다.



오늘은 왠지 말을 하기가 싫은 날이었다. 그래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흥안유치원에 도착해서는 미유가 (종이)꽃을 줬다. 옆집과의 바비큐파티를 한창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미유가 나를 흥안유치원 무대 쪽으로 잡아 끌었다. 미유가 갑자기 춤도 추고 패션모델처럼 워킹도 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미유의 모습이 너무 웃기고 또 귀여워서 혼났다. 이후에는 동화간사님과 통화를 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마음에 남았고 위로가 되었다.

# # 11월 16일

06:30	아이들의 목소리에 기상
06:30 ~ 07:30	빠르게 양치세수 후 등원하는 아이들 맞이하기
07:30 ~ 08:30	아이들 체조 및 아침식사 돕기
08:30 ~ 09:30	아침식사 *Phở집이 달아서 다른 거 먹음
09:30 ~ 12:00	오전 활동
12:00 ~ 14:00	점심식사 및 낮잠
14:00 ~ 16:00	오후 활동

16:30	Trà sữa를 사먹으며 집으로
18:00	YMCA 도착
18:00 ~	각자의 시간





## # 우리의 하루

오늘도 아이들의 목소리에 하루를 시작하고, 각자의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추어 우리도 낮잠을 자고 오후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시간을 가졌다.

## # 각자의 하루



홍안에서 씨유(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었는데 토를 했다. 혹시 내가 빨리 줬는데 내가 주는 거라 막 받아먹다가 토한 건 아닌지 정말 미안했다. 점심때 또 토를 하는 걸 보고서야 많이 아프구나 했는데, 내가 아플 때는 하루 종일 힘없이 굴었을텐데 한없이 밝은 씨유를 보며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또 아픈 와중에도 나를 보며 웃어주는 씨유가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럽다. 아이들에 대한 어쩌면 공포증(?) 들이 씨유를 만나고 사라진 것 같아 나에게는 항상 너무 고마운 아이다.

# # 11월 17일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약간의 착오로 인해 아무 활동이 없었다. 그래서 강호간사님만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Y차를 타고 공항에 가서 강호간사님을 맞이했다. 그리고 Y근처에서 야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강호간사님과 첫 날을 마무리 했다.

## # 각자의 하루



내가 근우오빠 USB를 한에게 빌려온 컴퓨터에 꽂았는데, 근우오빠 USB가 망가졌다. 나 같았으면 짜증부리고, 화냈을텐데 근우오빠는 내 탓을 하거나, 화내지 않았고 오히려 나보다 침착하고 긍정적이었다. 그 모습이 나를 반성하게 했다.



김치부침개를 했는데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해줘서 뿌듯했다. 강호간사님 기다리다가 베트남 연예인 짜뿌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 강호간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았다!!

# 강호간사님 격하게 환영해요



Raonatti 16th  
강호간사님 Xin chào  
격하게 환영해요

Raonatti 16th  
강호간사님 Xin chào  
격하게 환영해요

Raonatti 16th  
강호간사님 Xin chào  
격하게 환영해요

Raonatti 16th  
강호간사님 Xin chào  
격하게 환영해요

Raonatti 16th  
강호간사님 Xin chào  
격하게 환영해요

# # 11월 18일



사이공 강이 보이는 카페



근우가 찾은 바비큐집



일본·베트남 관련 행사장



여행자거리 파이브보이즈

# # 11월 19일

06:20	홍안유치원으로 출발
08:00	홍안유치원 도착
08:00 ~ 08:30	아이들과
08:30 ~ 10:00	스승의 날 행사 *우리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10:30 ~ 12:00	아이들과
12:00 ~ 13:00	점심식사 및 뒤풀이
13:00	Trà sữa를 사먹으며 집으로
14:00 ~ 19:00	각자의 시간 *준호는 간사님과 이야기


19:00 ~ 21:00	떡볶기랑 짜왕을 요리해 먹음 *강호간사님의 센스를 볼 수 있던 시간. *강호간사님께서 설거지도 해주심.
21:00 ~	각자의 시간 *다함께 "그알" 보러다가 실패 *근우는 간사님과 이야기




## # 우리의 하루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흥안으로 향했다. 원래 흥안 가는 버스는 덜컹덜컹 열악한데, 오늘 따라 버스도 꽤 괜찮은 버스를 타고 빠르게 흥안에 도착했다. 오늘은 원래 흥안 가는 날이 아닌데 스승의 날 행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흥안에 갔다. 스승의 날 행사답게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예쁘게 꾸미고 있었다. 행사는 선생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공연으로 이루어졌고, 공연이 끝난 후에 선생님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로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으로 강호간사님께서 사오신 짜왕과 치즈떡볶기를 해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 각자의 하루

- 
- 11월20일 스승의 날 기념 행사인데, 선생님들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아이러니했다. '재롱잔치는 전세계 유치원에 다 있을까?', '재롱잔치는 누굴 위한 것일까?'
  - 오늘 우리 반 선생님의 머리도 묶어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었다. 우리반 선생님과 더 친해지고 싶다.
  - 행사에 오길 잘했다. 슬플 때, 기쁠 때를 함께 하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타인의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헤아릴 것. 역지사지!
  -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양과까지 공수해오신 강호간사님을 보며, 새삼 또 간사님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유치원에서 스승의 날 축제를 했고 그래서 우리도 안산에서 같고 닳은 cheer up 을 썼다. 화장을 한 아이들은 너무 이뻐고 무대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아직 제 몸 가누기도 힘든 만 1세 아이들은 너무 귀여웠다. 행사가 끝나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트남 선생님들께서 우리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하셔서 내가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다. 팀원을 대표해서 베트남어로 잘 전달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얘기를 들어보고자 해주시는 관심도 감사했고 또 부족한 우리지만 초대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좋았다.

- 하얀 드레스와 화관을 쓴 향의 모습은 진짜 예뻐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었다. 카메라를 쓰는 내 모습을 보자 향도 만지고 싶었는지 자주 뺨으러 들었다. 아무래도 재미있어 보이겠지. 색깔도 핑크색인데. 그래서 잠깐 주었더니 나를 몇 장 찍어주었다. 그러던 중 다른 아이들이 내 카메라를 뺨으려고 달려들었다. 일단은 뺨어서 가방 안에 뒀다.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된 것 같았다. (1) 카메라로 추억을 남기고 싶다. (2) 어린이들도 카메라를 만지게 하고 싶다. (3) 카메라가 망가질까 걱정된다. 이 세 가지 생각 속에서 매번 실수하게 되는 것 같다.
- 아이들이 공연하던 중, 내가 사랑하는 어린이 민이 뒤에서 홀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이 무대에 올라가지 않아서 아버지는 무척 화를 냈고 민은 거의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싶었는데 민은 너무 슬프고 억울했는지 내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담배를 피우러 나간 아버지가 돌아와서 민을 데리고 사라졌고 나는 민이 안쓰러워 계속 신경이 쓰였다.
- 선생님의 날은 여기서 꽤 큰 행사였는지 선생님들은 예쁜 아오자이를 입고 있었다.평소에 아이들에게 엄격하던 선생님은 잘 웃어주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아이들과 자주 웃고, 심지어는 나와도 사진을 찍었다! 앞으로는 선생님과 더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우리 반 바오 어린이는 금세 머리를 잘랐는데 그것이 너무 베트남 스타일이라서 한참 웃었다. (나는 그전 머리가 더 좋다. 찰랑찰랑 하기 때문이다.)

까. 이 날 가길 잘했다. 우리 보검이가 화장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다. 이 날은 캔디도 귀엽고 향도 귀엽고 영표도 귀여웠다. 재롱잔치를 했는데 우리 반이 가장 잘한 것 같았다.

# # 11월 20일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새벽에 준호가 아픈 것으로 시작해서, 하은, 바다도 아파서 하루 종일 잠만 잤다. 그래서 근우와 강호간사님은 망부석이 되었다.

## # 각자의 하루



원래 1년에 한번? 병원에 갈까말까 할 정도로 건강한데 요새들어 부쩍 약해지다 이 날은 장염에 걸리고 말았다. 강호 간사님도 오셨는데 눈치없는 내 몸이 새벽에 끄끙대다가 결국에는 구토를 수차례 하였다. 근데 신기하게 토를 했는데도 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원래 토하면 괜찮아 지던데... 암튼 그 다음날도 24시간 누워있었다. 그 날은 우리팀 중 근우형 빼고 다 아팠다고 한다.



-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속이 안 좋아서 밖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토를 했다. 토를 한 적이 많이 없어서 당황했고, 토하는 게 많이 힘든 일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아파서 맨날 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몸소 느꼈다.
- 오늘 간사님과 근우오빠와 '그것이 알고싶다'를 함께 봤다. 그알을 보며 경찰이 할 일을 그알팀에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희생되는 현실이, 경찰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 # 11월 21일



## # 우리의 하루

어제 준호, 바다, 하은이 아팠던 관계로 오늘 활동을 가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으로는 볶음밥을 먹었고, 저녁으로는 하이네켄이 쓰여진 레스토랑에 가서 모르는 음식을 이것저것 시켜 먹었다. 그리고 오늘 바다와 하은이는 개인 면담 시간을 가졌다.

## # 각자의 하루



간사님과 미뤄두었던 개인면담을 했다. 스치듯 말씀하신 “함께 살기”가 자꾸 마음에 남아있었다. 함께 사는 건 할 수 있는 일일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런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

# # 11월 22일

10:00	맛있는 아점 먹으러 출발
11:00 ~ 12:30	Pizza & Trà sữa에서 점심
12:30	걸어서 한국어 센터로
13:00 ~ 15:00	하은 수업 *간사님, 근우, 바다, 준호 참관
15:00 ~ 16:00	이야기 나눔 및 쉽
16:00 ~ 17:00	한국어 센터 관리자 분과 카페에 가서 이야기 나눔
17:00 ~ 17:30	간사님의 전체적 피드백

17:30 ~ 19:00	17:30 ~19:00 근우 수업 17:30 ~19:00 바다 수업 *강호간사님, 준호, 하은은 짐 가지러
17:00 ~ 17:40	공항으로
20:00 ~ 21:00	파파이스에서 최후의 만찬 *동혁오빠도 왔다.
21:20	간사님과 안녕
21:20	택시 타고 집에 와서 각자의 시간



## # 우리의 하루

일어나서 아점으로 피자&짜스어 가게에 가서 피자를 먹고 그 후에 UTE로 가서 하은이가 수업을 했다. 그 후에 UTE관리자 분과 학교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잠깐 간사님과 다 같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지고, 바다와 근우는 수업을 하러 가고 간사님과 하은이와 준호는 YMCA로 돌아가서 간사님 집을 챙겨왔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같이 공항으로 가서 저녁으로 파파이스를 사먹고 15기 단원 동혁이도 같이 와서 강호간사님을 배웅했다.

## # 각자의 하루



베트남에 산지 어느덧 76일! 그러니까 딱, 살 날보다산 날이 더 많아진 날이다.



간사님이 계셨던 5일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들을 인식하고 또 반성하기에는 충분했다. 간사님께서 가시고 난 후 오랜만에 내가 라온아띠를 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오늘 갑자기 라온아띠가 넘 버겁게 느껴졌다. 난 라온아띠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슬프고 힘들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라온아띠랑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하고 싶은 마음이였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나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거의 모든 고민의 결론인 것 같다)갑자기 라온아띠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몰까요 증말.

# # 11월 23일



## # 우리의 하루

어제 저녁 흥안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오늘은 흥안유치원 활동이 없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각자의 시간을 가졌다.

## # 각자의 하루



오늘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기분전환도 하고 살 날 보다 산 날이 더 많아진 것을 기념할 겸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했다. 원하던 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족!



오늘의 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 글 한 쪽지를 쓰고, 바나나 튀김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 바나나 튀김을 파는 꼬어이가 làm gì(=무슨 일을 하니?)를 시전하였고 tình nguyện viên(=봉사자)를 까먹은 나는 그냥 sinh viên(=대학생)이 되었다. 꼬어이는 바나나튀김을 포장하면서 học gì(=뭐 공부하니?)를 시전하셔서 xã hội học(=사회학)을 말했고 오늘 학교 가는 거냐고 되묻는 말에 나는 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 실패~ 하지만 아무것도 나의 바나나튀김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없었고 그동안 먹고 싶었던 마음을 가득 담아 우적우적 먹었다. 집에 와서는 곧 몽롱해져서 잠을 잤다. 정신을 차리니 5~6시였고... 응 지금은 6시정도 이다. 요즘 모든 것이 별로 노잼이고 이렇다 저렇다 할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말하고 정리하는게 지친다. 집 근처 동네도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요즘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비실비실한지 모르겠다. ㅎ<-<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더욱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 # 11월 24일

12:00 ~ 14:00	Y에서 점심식사 및 쉬
14:00 ~ 16:00	언어교환 *준호는 원래 파트너가 없고, 하은이는 파트너가 말레이시아 가서 못 왔다.
16:00 ~ 19:00	각자의 시간
19:00 ~ 20:30	여러 안건에 대한 회의
20:30 ~	각자의 시간 *베트남 무빙스쿨 컨택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베트남어 수업이 없었고, 오후에 진행되는 언어교환 프로그램에 바다. 근우 짝꿍만 왔다. 그래서 하은이는 보고서를 만들러 카페에 갔고, 준호는 피아노를 치러 교회에 갔다. 저녁식사 후에는 다 같이 모여서 강호 간사님이 가신 후에 서로의 생각에 대해, 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는 베트남에서 무빙스쿨로 환경(위생)관련 단체와 만나기 위해서 단체를 선정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 # 각자의 하루



마음이 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잘 표현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표현하는 용기는 좋은데, 말하고 나서 감도는 어색함이 너무 버겁게 느껴진다.



가끔씩 피아노를 치러 교회에 가는데 (버스타고 30분) 역시나 몰래쳐서 그런지 들키는 횃수가 많아지고 있다. 오늘은 덕분에 조기퇴장을 당했다. 이제 피아노는 어디서 치나!



오늘 phương 언니를 기다리는데 문득 언니와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나를 덩달아 즐겁게 했다. Phương 언니와 강 근처 카페에 갔다. 베트남어 책을 두고 온 나를 슬쩍 보다니 오늘은 좋은데 왔으니 놀면서 쉬자고 했다. 나는 또 적극 동의했다. 그래서 유튜브로 베트남 음악, K-POP, 한국인 유튜버 등을 보면서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중간중간 영어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 하늘이 예뻐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바람도 좋았다. 카페 옆에는 낚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잡는 것마다 쓰레기였다. 그것도 재미있어서 막 웃었다. 내가 아는 베트남 사람 중 가장 열심히 사는 것 같은 phương 언니는 오늘 강 근처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한국어 학원도 안갔다. 그게 또 웃겨서 나는 그만 팀원들과의 약속을 깜박하고 말았당... ⊗ 오늘의 교훈: 시간 약속을 잘 지키자

# # 11월 25일



## # 우리의 하루

오늘 바다와 근우는 언어교환 파트너를 만나러 가고, 준호와 하은이는 집에서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9시 정도 활동피드백 등 보고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 # 각자의 하루



- 약국 오빠, 약국 언니, 밥사오 아줌마가 너무 좋다. 말을 거의 못 알아 듣지만 그 정, 따뜻함이 참 좋다. 그들은 내가 다시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싶은 이유이다.
- 밥사오 아줌마네 앉아 있는데 저번에 잠깐 들어갔었던 미용실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두둥!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오늘은 Thanh Nhi와 phuong과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갔다. 은근 맛이 한국의 김밥천국 같아서 놀랐다! Thanh Nhi는 근우오빠가 너무 웃긴지 자꾸 웃다가 울었고 그게 신기하고도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다.  
1) 딱히 유창한 언어 없이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이건 거의 매일 생각하는 것 같다...) 2) 사람 자체가 좋아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3)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언어교환 시간을 유용하게 쓰고 싶다! 4) 노는 방식이 한국 친구와 있을 때와 비슷하다. : 먹고(한식) - 먹고(빙수) - 또 먹기!(밀크티)
- 집에 도착해서는 앞 집 개와 놀았다. 흰 개 이름은 꼬까이고 검은 개 이름은 뭉이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큰 귀인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나는 애타게 꼬까의 이름을 불렀다. 애잔했던지 앞집 아저씨가 고소미를 가져다가 먹이라고 건네주셨다. (아니 비싼 한국과자를 개한테 먹이다니! - 라고 잠깐 생각했지만) 고소미를 먹인 이후로 뭉은 그나마 나를 아는 체 하는 것 같아서 기뻐다. 꼬까는 아직도 날 무서워하는지 경계하는지 도망다니지만 나는 아직도 꼬까와 놀기를 포기할 수 없어... ☺



# # 11월 26일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3시 정도에 모여서 중간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는 각자 저녁을 먹고, 방에 있는데 워크캠프 사람들이 Y로 와서 하은이와 바다도 함께 참여했다. 그 후에 다시 모여서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한번 회의를 하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 # 각자의 하루



- 싱가포르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로 이루어진 워크캠프 팀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고,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상황이 나를 설레이게 했다. '난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 내가 회의에 늦을까봐 집으로 뛰어가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이 "Hello"라고 하며 나를 졸졸 쫓아왔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 근우 오빠가 헌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 마음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 # 11월 27일



## # 우리의 하루

오늘 근우, 준호, 하은은 교회에 갔다가 교회 끝나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동혁 오빠와 함께 장을 봤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집에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하은이와 바다는 약국집에 가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 # 각자의 하루



- 교회 갈 때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바다가 마음에 걸린다.  
“바다야, 배려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 오늘 교회에 반주자가 안 왔는데, 신기하게도 조이풀밴드가 교회에 와서 더 풍성한 예배가 되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고 느꼈고, 한 집사님과의 대화 중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 와 닿았다.

# # 11월 28일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원래 UTE가는 날인데, 안 와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서 UTE에 가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저녁에 저번 주에 약속한 약국집과 밥사오 아줌마와 함께 한식 그리고 베트남 음식을 한 상 차려서 푸짐한 저녁식사를 했다.

## # 각자의 하루



오늘은 우리가 한식을 대접해 드리기로 한 날이었는데, 약국언니오빠와 밥사오 아줌마가 더 크게 베풀어 주셨다. 참 감사하다.  
“떡볶기를 나눠준 바다와 김치전을 만들어준 근우오빠에게도 고맙습니다!”

# # 11월 29일

09:00	1군 스마일 레스토랑 출발
10:00	근우: 설거지
~	바다: 반찬 담기
13:00	준호: 밥 채우기
	하은: 식판 배식
	* 점심은 배고플 때 스마일에서
14:00	COOP 마트로 이동
14:00	COOP 마트 쇼핑 및 집으로
~	* 사무국 감사님들 선물 사러
17:00	
17:00	홍안유치원으로 출발
18:00	홍안유치원 도착
18:00	
~	저녁식사
19:00	
19:00 ~	각자의 시간



## # 우리의 하루

오늘은 1군 스마일 레스토랑에 갔다. 활동이 끝나고 스마일 레스토랑 봉사자들과 이야기 하다가 곧 오시는 다솜 간사님과 사무국의 선물을 사기 위해 COOP 마트로 갔다. 논의 끝에 선물로 커피를 사기로 해서, 커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미리 준비해 둔 호아 이모 손녀의 선물을 전해드리고 짐을 챙겨서 흥안 유치원으로 향했다. 흥안에 가서는 언제나 처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옆집 미유와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 # 각자의 하루



오늘 스마일레스토랑 가는 길, 버스정류장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언니를 만났다.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먼저 버스 번호를 물어보았다. 다음부터는 용기 내서 먼저 말을 걸어봐야지!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한국보다 장애를 갖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아닐 텐데 한국에 비해 훨씬 자주 접한다. 그런걸 보며 '어쩌면 베트남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기 더 편한 나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 11월 30일

06:30	아이들의 목소리에 기상
06:30 ~ 07:30	빠르게 양치세수 후 등원하는 아이들 맞이하기
07:30 ~ 08:30	아이들 체조 및 아침식사 돕기
08:30 ~ 09:30	아침식사 *분깃느엉 먹음
09:30 ~ 12:00	오전 활동
12:00 ~ 14:00	점심식사 및 낮잠
14:00 ~ 16:00	오후 활동

16:30	집으로
18:00	YMCA 도착
18:00 ~	각자의 시간



## # 우리의 하루

아이들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평소와 같이 아이들을 맞이하러 갔다. 아침으로는 분깃느엉을 먹고 후식으로는 짜스어를 마시고 각자 교실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점심식사를 하고 낮잠을 잔 후 오후활동을 하고 흥안 유치원을 나섰다. 그런데 오늘따라 우리가 타야하는 버스가 안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새로운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다.

## # 각자의 하루



- 오늘 새벽에 처음으로 우리가 자는 방에 바퀴벌레가 날아 들어왔다. 저번 기수 보고서에서는 자주 말썹을 피우던 바퀴벌레와 지금에서야 처음 마주한 것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으면 좋겠다.
- 오늘 우리반 아이 '빈'이 귀엽게도 내복바람으로 유치원에 왔다. 빈이 내 품에 꼭 안길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이 행복하다.
- 아이들이 나를 때릴 때면, 나는 양손을 꼭 붙잡고 훈육을 시도하지만, 매번 실패다.
- 오늘 우리가 타야 하는 602번 버스가 안 오고 계속 이상한 버스만 왔다. 아저씨가 자꾸 타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타지 않고 코디네이터 한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탔다. 온지 세 달이 지나 익숙해질 때지만 항상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자!



# 11월 활동 피드백





## #. 동아대-UTE 한국어 교육센터

### 활동목적

원어민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말하기와 듣기  
실력 향상 및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 활동피드백

- ✓ 수업 끝나고 그날 수업에 대한 나눔의 필요
  - 수업에 함께 들어간 보조교사는 그 수업의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피드백
  - 수업한 주교사는 그 수업에서 효과적이었던 방법이나 힘들었던 점에 대해 나눔
- ✓ 수업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필요한 내용을 차용하기 위해서 수업내용 공유 필요
  - 게시판에 수업 날짜/담당 선생님/수업장소/수업레벨/수업내용 기록하기
- ✓ 수업에 정확한 자료를 사용하고 정확한 내용 가르치기
  - 문법을 가르칠 때 공부해서 가르치기
  - 한국어센터 선생님들께 수업자료 피드백 받기
- ✓ 공강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 #. 스마일 레스토랑

### 활동목적

스마일 레스토랑 봉사자로서 스마일 레스토랑에 필요한 일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피드백

- ✓ 다양한 스마일 레스토랑에 갈 것인지 한 곳에 정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

9월~10월 초 1군 스마일레스토랑에서 봉사



스마일 봉사자 Jhon의 추천으로  
다양한 스마일 레스토랑에 가볼 것을 한에게 제안



한과 4군, 10군 스마일 레스토랑에 가봄

#### 장점

- 다양한 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다.
- 서로 다른 스마일 레스토랑을 경험할 수 있다.

#### 단점

- 봉사자들과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 우리의 역할이 어중간하다.

#### 결론

다양한 곳에 한 번씩 가보고 한 곳에 정착하자.  
그런데 그러기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 #. 흥안유치원

### 활동목적

흥안유치원의 봉사자로서 흥안유치원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과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피드백

- ✓ 1층 화장실의 문이 반투명인 것, 문이 안 잠귀는 것 등 안전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
  - 화장실 문을 가릴 옷걸이와 담요 등을 준비해 가기
  - 경비인 쭈뼌과 규칙 정하기
- ✓ 활동 전날 밤에 할 일에 대한 논의 필요
  - 흥안유치원에 활동 전날 밤에 이동하므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나눔
- ✓ 활동에 대한 공유 필요
  - 힘든 점, 좋았던 점, 논의할 점 등에 대한 나눔

하은 만2세 반 (24~36개월)	교사1명 / 아동 약15명
준호 만3세 반	교사1명 / 아동 약20명
바다 만4세 반	교사2명 / 아동 약40명
근우 만5세 반	교사2명 / 아동 약40명



## #. 베트남어 수업

### 활동목적

활동지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지에서의 관계 맺기를 위한 베트남어 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피드백

- ✓ 베트남어 수업을 지속할 것인지, 안 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9월 한 달 동안 오전/오후 베트남어 수업



10월부터 활동이 시작하면서 매주 목요일 오전에 베트남어 수업을 하게 됨



10월 동안은 활동지에 필요한 말들을 추가로 배웠는데, 11월에는 무엇을 배워야 할 지 모르겠다는 피드백이 나옴



한국에서 가져온 책을 한 권 정해서 배우기로 함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이 지속되지 않고 끊기게 되고, 앞으로 활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베트남어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 #. 언어교환

### 활동목적

1:1로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가르쳐주어 언어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피드백

- ✓ 준호가 짝꿍이 없는 것과 짝꿍이 개인사정으로 안 왔을 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 YMCA베트남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수업에 결석해야 하는 경우 미리 연락하기
  - 수업 내용에 대해 기록하기
- ✓ 수업공간 분리 필요
  - 카페 등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간사님 설득 필요

Y Korean Class활동이 학생부족으로 인해 언어교환으로 바뀌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활동이 바뀌어서 YMCA도 우리도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활동이다

근우 - Thanh Nhi

하은 - My

바다 - Phuong

준호 - 없음



## #. 레딘친 초등학교

### 활동목적

수업에 들어갈 경우 교사로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필요한 경우 벽화 그리기 등 레딘친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피드백

- ✓ 가능하다면, 수업과 벽화 격주로 진행
- 스케줄이 바뀐다면 미리미리 공지해 줄 것
- ✓ 2주간 활동중단으로 인해 방임하는 느낌을 받음

레딘친 초등학교는 전 기수에게는 피드백이 안 좋았지만, 우리에게도 수업을 하는 것도 벽화를 그리는 것도 즐거운 활동이다. 또한 네 명이 함께 수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팀에게는 소중한 활동이다. 그런데 우리와 레딘친의 사정으로 이번 달에 한 번 밖에 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 에세이



## 근우의 11월

### # 베트남 팀은 짱이야?

라운아띠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가치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초점은 단 한번도 우리 팀에게 향하지 않았던 것 같다. 혼자 뭘 해보려고 했고 누군가와 공유하지 않고 혼자 고민했다. 심지어 활동에서마저 그랬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의 가치를 놓았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장 '효과적'이었을까?

안산에서의 많은 부딪침이 이곳에서 없어진 것은 어쩌면 지나친 배려가 만들어낸 것 같다. 굳이 입 밖으로 내어 감정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삼킨 것과, 서로를 존중하고 개인의 가치를 위하느라 함께 하지 않은 그 시간들이 '평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잔잔한 바다는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만 남기고 내가 받은 상처는 내 몫으로 돌렸고, 무언가 제안하고 시작함으로써 부딪침이 두려워 말을 삼켰다. 물론 우리 팀원들과 있으면 너무 즐겁고 좋다. 하지만 안산의 우리가 즐겁지 않았던 건 더더욱 아니다. 안산에서 내가 뽑은 우리 팀의 장점은 인정과 회복이다. 말을 삼킴으로써,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팀의 가치를 놓칠까 두렵다.

이제는 정말 함께 할 시간이다.



## 바다의 11월

이번 달은 왠지 말하기가 싫은 날들이 많았다. 서로를 마주할 때는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에너지를 뺏기는 날이 더 많았다.

그래서 마주하기가 더 힘들었다. 우리 사이의 다름을 마주할 때는 더더욱. 그럴 때면 예전에 쓴 글이나 다짐을 읽었다.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 체념하지 않고 말하기... 새삼 그 말의 무거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서로 어렵고 힘들게 ‘함께’ 해서 뭐가 좋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나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다. 더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다. 남은 날들에는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 하은이의 11월

### # 이제야 또렷해진 나의 목적

11월에는 ‘관계’로 많은 고민을 했다. 베트남까지 와서 관계 때문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혼돈의 시간을 보내다가 강호 간사님께서 베트남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베트남에 온 목적에 대해 분명히 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나의 고민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고민할만한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렇다. 라온아띠에서 나의 목적은 ‘관계’에 부딪혀보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가족, 팀원 그리고 베트남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마주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 # 말 한마디의 무게

이번 달에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천 냥 빚, 그 이상의 갚을 수 없는 빚을 질 수도 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 이상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내 생각에,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최대한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 또 다른 나의 동네

정 준 사람들이 생겼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사실은 느끼고 있었지만, 그게 그다지 아쉽지는 않았는데 마음을 준 사람들이 생기고 나서는 시간이 가는 게 아쉽다.

아쉬우니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덜 아쉽게, 덜 후회되게 어린아이처럼

# 준호의 11월

## 〈조준호의 한줄〉

- 프랑스의 논술형 대입자격시험 '바칼로레아' 철학시험 중  
"말은 행위인가?"

- 달리는 버스안에서 내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내리는 시간에는 단 1초의 영향도 줄 수 없다. 내 통제 밖에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그저 마음을 편히 먹는 것

- 기타 1 : 1번줄 1번 플랫을 검지손가락으로 눌러보자. 애매하게 눌렀다간 그저 둔탁한 소리만 들릴것이다. 아예 누르지 말거나 힘껏 누르거나

- 기타 2 : 굳은살이 배기기 전까지는 올바른 소리를 낼 수가 없다

- 거울 같은 인생, 색깔이 있을까

- 환경보존운동을 외쳐대는 사람들이 정말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 아무것도 하지않고 산속에 들어가 산다.

- 에이. 돈 많고 명예만 있으면 뭐해. 행복하질 않은데. 류의 말들이 무섭게 흘러 넘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행복이 인생에서 추구해야할 최대의 가치일까

- 머리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100% 사실이라고 믿지만 가끔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가끔가다 흠칫 놀라는 사실들 : 1.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2.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아니다. 왜지는 모르겠는데 무의식중에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다.



- 라온아띠에 와서 나에게 생긴 가장가장 큰 변화는 바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 우리 아빠가 어떻게 생긴지도 거의 몰랐는데 얼마전에 페이스톡을 걸어 아빠 얼굴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늙어계셨다.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을 했다. 그동안 잘 지냈나로 시작되는 그저 그런 말. ㅋㅋ고마워 근데 연락은 왜 안함. 하 그렇게 앞으로 자주할게. 그래 고마워ㅎㅎ^^ 딱 잘라내는 말 투. 얼마간 연락안하면 그저 진짜친구리스트에서 쳐내는 듯한 태도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듯 했다. 평소였으면, 근데 너도 연락 안한건 마찬가지 아니야?ㅋㅋ 왜 나한테만 그러니. 그랬을텐데 이번엔 그저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 중학생때부터 반 애들과 다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알겠지만 그중에는 꼭 다음과 같은 캐릭터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한명씩은 있기 마련이다. 진짜 말 많은 애, 재밌는 애, 창가에 앉아 무언가 계속 생각하는 애, 이성애 관심이 많은 애, 공부 잘하는 애, 운동 잘하는 애, 뭐 이것저것 들고 오는 애, 학교 도서관에서 사는 애, 게임 잘하는 애, 엄마아빠 의식 엄청 많이 하는 애, 조용해서 말도 잘 안하지만 항상 같이있는 애, 선생님이랑 맨날 싸우는 애, 마당발인 애 등등 여기서 대충 절반정도는 맡아본 캐릭터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거의 사실상 한번도 맡아보지 못한 캐릭터였다. 라온아띠에서 그런 나머지 절반 캐릭터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듯 하다. 새로운 느낌이다. 아 그 친구가 이런 느낌이었을라나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이냥저냥 살다보니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긴것 같다.

- 근데 이걸 진짜진짜진짜지이인지 매일매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하는 말인데 "인생은 너무 짧다" "25살이라면 고작 인생시계에서 새벽 6시다. 이제 인생을 시작할때이다. 화이팅!! 이런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러려면 밤 12시에 일어나야하고 야식도 먹지못하고 다시 밤 12시에 바로 칼 취침을 해야한다. 쓸데없는 진통제는 이제 그만 먹고 빨리 부딪혀보자.

- 갑자기 웬 고3 감수성이 다시 불어닥쳐서 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다. 그런것들에 관심이 많다. 작년에도 수능을 봤다. 딱히 반수의 목적은 아니었고 그저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전날 수험표를 받기위해 대전에서 화성까지 올라와야해서 이틀내내 썩으로 대학교 수업을 빼먹었다. 시험장에 들어갈때도 교복을 입고 들어갔다. 작년에 모의고사 검토투도 한번 한적이 있다. 고등학교에 자주 찾아가서 아마 내가 졸업생중에 학교를 찾아가는 비율이 단연 1위일 것이다. 수만휘, 상위 1%, 포만한 카페들에도 자주 들어간다. 잠깐 근데 여기까지 놓고 보자면 위에서 말했듯, 그저 그때가 그리워서 추억해서 그때로 더 다가가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맞다. 맞는말인것 같다. 미련하지만 그저 고등학교 생활을 추억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앞으로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다시 고등학교 3년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3년 뒤에 바로 죽는다해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아 근데 원래 이 글의 처음 의도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새는 진짜 그런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교육에 관심이 많다~ 뭐 이정도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때가 공부하던때가 그리워서 버리지 못해서 계속 이런것들에 관심이 많은것 같다 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다. 흠..아니다. 그래도 교육에 관한 다큐들을 찾아보고 있고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다. 뜬금없이 공부의 신 강성태 영상도 찾아보고 있다. 내가 항상 초단기 목표, 초장기 목표 이렇게 두개의 목표만 세워놓는데 초장기 목표중 하나는 교육의 혁신이다. 이걸 그래도 진짜다. 20세기에 짜놓은 방식을 지금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저 지식을 습득하는게 공부는 아니다. 아무 의미없는 스펙, 아무 생각없이 마냥 바라보는 높은 대학 등 이미 하도 언급되어 닳아버린 이런 것들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말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뼈저리게 체감할 것이다. 어떤 교육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찾기 위해 나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조준호의 생각〉

- 나는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이다. 꼭 부정적인 뜻의 후회가 아니라 추억하고 되새기고 후회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 사실 사람이든 활동이든 잘 떠나보내지 못한다.

그래서 좀 나이를 먹고 나서는 진짜 힘든일, 싫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아, 나중에는 이 일들이 다 미화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겠지?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든다.

실제로도 그런 생각들은 여지껏 옳아왔다. 더군다나 좋았던 것이라면 정말 계속 두고두고 생각하며 기분이 안좋은 일이 있을때도 그것을 중화하듯, 코트 안주머니에 몰래 꽂쳐두었던 초콜릿을 까먹듯 회상한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에도 미련이 많아서 스스로 귀찮을 때도 많다.

바로 본론으로, 그래서 나는 한국에 돌아갔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오랫동안 고민했으나 거의 생각나는게 없다. 난 이미 나중에 지금을 회상할 때 너무나 좋았던 기억들만 생각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아쉬움이 남아 있으면서 아 그때 이걸 더 해볼걸 하며 후회할것도 이미 알고 있다. 여태껏 그래왔기 때문에.

한달째 고민해봤자 답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오히려 그러한 후회가 있기 때문에, 더 값지고 아름답다고나 할까. 표현을 잘 고르지를 못하겠네.

어디에 가지 못한 것. 누구와 더 친해지지 못한 것. 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한 것. 어리고 아프기 때문에 더 가치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덮어두고 지켜봐야겠다.

(뜬금) 인생은 끝이 있기에 아름답다.

- 오늘은 11월 22일이다. 11:22. 11:22 = 1:2. 엠 근데 뭐 어찌라는 거지?? 그렇다 나는 공대생이다. 나는 지난 13년의 학창시절동안 거의 수학과 과학만 공부하였다.

왜냐. 재밌으니까. 며칠전 수능에 나온 수학영역, 과학탐구영역 문제도 풀었고, 중학생때 있었던 버릇인데 세계 수학올림피아드 문제들은 심심할때마다 푼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지나가는 차 번호판 4자리 숫자를 가지고 사칙연산만 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10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성공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도 공대공대 체크무늬셔츠공대 남녀비율10대1공대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나도 같이 공대생들을 놀려댔는데 생각해보니 알게 모르게 나도 공대적인 마인드가 조금 있었다.

딱히 부정한적은 없지만 새삼 생각해보니 놀라운 점들이 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계산적인 자세.

이건 강호간사님이 얘기해 주신건데, 나도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 몰랐던 사실이다. 계산적이라는 것. 그저 +면 기분이 좋다. 어릴때는  $7 - (-3) = ?$  에서 -와 -가 만나 +가 되면 웬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기분이 좋았던게 생각이 난다.

효율을 따진다. 왜냐? 효율이 안좋은거보단 효율이 좋은게 좋으니깐. 하지만 어떠한 가치중립적인 관념이 인생과 만나니 그리 중립적이지 않은 신념이 된것 같다.

정말 이에 대해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나쁜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쯤 생각해볼만 하다.







## 〈조준호의 망상〉

- 외국인은 아무리 오랫동안 한국말을 공부해도 말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다. 우선 발음에는 아무리 연습해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떠한 벽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어릴때부터 ‘ㄱ’을 발음할 때 혀를 어디에 두어야 하고 ‘ㄴ’을 발음할 때는 입술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 하는 어떠한 비밀스러운 사실들을 몰래 공부하며 발음한 것은 아니지만, 또, 같은 표준어를 쓰는 한국사람 사이에도 억양, 높낮이, 장단 등등 저마다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도 바로 한국사람인 것을 알아맞출 수 있는 것을 보면, 무언가가 있음에 틀림 없다.

또 하나는 어떠한 언어적인 느낌이다. ‘날씨가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다’,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먹는다’ 뭔가 알 듯 말듯한 미묘한 느낌, 딱히 누가 알려주지도 느끼고 있다. 문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어딘가 어색한 문장들도 한방에 구별할 수 있다.

5살까지 한국에서 산 애기와 5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20대 외국인중에 누가 더 한국말을 잘할까? 그저 어릴때의 두뇌가 언어를 공부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말로 커버할 수 있을까?

(한편) 내가 베트남에서 했던 일 중에 진짜 열심히 했던 일을 꼽으라면 베트남어 공부라고 말할 것 같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다 문득 느낀 당연하지만 신기한 사실은 바로, 영어와 한국어에도 있는 전치사, 접속사, 동사들이 베트남어에도 있다는 것. 당연한 듯 하지만 꼼꼼히 생각해보자. 접속사(왜냐하면, 그러나, 그리고, 또한)가 똑같이 다른 언어에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 추가로 정보를 덧붙이는 것 등등. 어떠한 동사가 똑같이 다른 언어에도 있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 역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사고의 흐름. 아이에게 언어란 어떠한 강력한 생존수단이다. 내 생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저 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생각을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다. 생각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언어능력도 커가는 법. 별을 관측하면 할수록 망원경을 다루는 방법에 능숙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어떤 의미에서는 필사적으로 언어를 습득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나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언어를 빨리 습득한다고 생각한다. 생각을 키워나가는 시기에 언어를 배운다. 그 언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나를 나타낼 방법이 없다 등등. 어른이 아이보다 절대 멍청하지는 않다. 오히려 훨씬 똑똑하다. 다만 필사적이지 않을 뿐.

-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도로 동시에 멍청해지면 이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남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사기를 치지 않는다.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왜? 멍청하니까. 그러한 행동을 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4년 내내 같은 반 아니면 해봤자 옆 반을 벗어나지 않던 한 정신지체장애인 친구가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건 웃었다. 본인이 좋지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 아무쪼록, 모든 사람이 멍청해지는 사회가 형성된다면, 그래서 본인이 좋을때나 안좋을때나 행복을 느낀다면 과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는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한 고도의 지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보아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처럼 본인의 기분이 좋지 않아야할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낀다면?

에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 그저 착각에 불과한 가짜 행복이잖아 라고 바로 반론할 여지가 보인다. 하지만 그 논의는 잠깐 접어두고 다음을 계속 읽어나가보자.



(한편) 이 얘기는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법한 생각이고, 내가 수능 공부를 할때 비문학 지문에도 나온 글이다.

바로 "통속의 뇌", 사실 모든 사람의 뇌는 어떠한 조그마한 통속에 갇혀있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들은 전부 그 뇌로 가공된 전기 신호가 흘러들어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이다.

당연히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2차원에 사는 사각형이 3차원에 사는 정육면체를 영원히 떠올릴 수 없듯 반영된 세상에 사는 우리는 결코 진실을 알 수 없다. 죽은 이후에도. 해봤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단지 오감에 의존하여 세상을 느끼기 때문.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저 누군가의 상상또는 관념에 불과하지만 너무나 정교하여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듯한 착각. 암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뇌를 심하게 다쳐 거의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고사하고, 호흡도 힘들고 소화도 힘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힘들다.

이때, 어떤 훌륭한 과학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 "당신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몸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가짜 호르몬, 전기 신호를 뇌에 주입해도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마저 힘들다고 하였으나 편의상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자)

실제 내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건강한 두팔 두다리에 천국을 마음껏 뛰놀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살다가 진짜 몸이 죽으면 죽는 것이다.

사실 나도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겠다. 거절하기에는 내 현 인생이 너무 불행하고 수락하자니 내가 말 그대로 허상을 살다 죽는 것인데.

하지만 또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현 인생도 그저 뇌가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 화남, 불행, 슬픔, 놀람, 두려움 등등 모든 감정들은 그저 뇌가 만들어낸 가짜에 불과하다.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정말 행복한것이랑 그저 뇌에 모르핀을 한가득 주사하는거랑 실질적으로 별 다를바가 없다.

잠깐 그렇다면 여기 한가지 더 생각해볼게 생긴다. 우리가 그렇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값지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추가로 더 한가지.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내가 아인슈타인으로 살다 죽으나 히틀러로 살다 죽으나 아니면 그저 평범한 시골의 농부의 삶을 살다 죽으나

그저 똑같은 거 아닐까. 그다지 의미없는 인생에 가짜인 주변들에 둘러 쌓인 인생은 더더욱 쓸모가 없어 보인다. (주변을 주변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 하다. 모든것은 우리 뇌의 필터를 거쳐 들어오기 때문이다.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내가 처음에 했던 생각,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도로 멍청해지면 이 사회가 조금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말은 이제 생각해보니 아예 의미조차 가소로운 말이 되고 말았다.

에이 어차피 살다 죽는 인생, 멋지게 살다 죽자! 라고 그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 뭐 이 해는 간다만 나에겐 그저 대책없는 낙관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여서 감사한 11월.  
앞으로 더 행복하자 우리 : )

